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영어 번역본에서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수화자(narratee) 변화 분석

윤 미 선
(동국대, 서울)

1. 서론

주요섭의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1935)는 어린 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의 사랑을 들려주는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가 탁월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소설의 화자인 ‘옥희’는 사건의 배후나 등장인물의 심리를 면밀하게 알지 못하고, 보고 들은 내용을 단편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는 화자가 말하지 않은 이면을 상상하며 독서를 하게 된다. 옥희와 같이 나이로 인한 인지적 제한이 있거나 어떠한 결함으로 인해 서술의 신빙성이 없는 화자를 일컬어 ‘믿을 수 없는 화자’(unreliable narrator)¹⁾라고 하며,

1) Unreliable narrator는 ‘신빙성 없는 화자’, ‘신뢰할 수 없는 화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개념이 소설 교육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국어교육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처럼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서술은 서사학에서 다양한 논의를 생산해 왔다.

믿을 수 없는 화자에 대한 논의는 웨인 부스(Wayne C. Booth)에 의해 본격적으로 점화되었다. 부스는 “화자가 그 작품의 규범을 대변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할 때에 믿을 수 있는(reliable) 화자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믿을 수 없는(unreliable) 화자”(Booth 1983: 155)라고 하였다. 또한 이처럼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을 감상할 때 필요한 개념을 ‘내포저자’(implied author)로 제시하였다. 신뢰하기 어려운 화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 독자가 서술의 빈틈을 발견하거나 그 이면의 의도를 생각하게 된다. 일부러 빈틈을 만들거나 독자의 해석이 필요하도록 서술을 설계한 존재가 바로 내포저자로, 실제저자의 “제 2의 자아”(second self)(Booth 1983: 70)이기도 하다.

부스의 논의 이후 믿을 수 없는 화자의 분석은 내포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고에서는 프랭스(Prince 1980, 1982, 1985, 2011)가 제시한 ‘수화자’ 개념을 바탕으로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원본과 번역본을 분석하고 그 변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화자(narratee)²⁾는 제럴드 프랭스(Gerald Prince)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용어로, 바르트(BARTHES 1961, Schmid 2013에서 재인용)의 ‘narrataire’(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뜻함) 개념을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소설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화자가 있다면,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인물 역시 한 명 이상 있기 마련이다. 내포저자는 텍스트 내에 실재하지 않는 반면, 수화자는 기호를 통해 텍스트 내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는 서술의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믿을 수 없는 서술에서 나타난 원본과 번역본 수화자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서술과 관련하여 수화자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Hansen 2017; Phelan 1994, 2007; Ståhlberg

2) 제럴드 프랭스의 저서인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 of Narrative*의 한국어 역본 번역가인 최상규는 역자후기에서 ‘서사대상’(the narrated)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화자의 대립 개념으로서의 narratee는 ‘수화자’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쓴 바 있다. Narratee는 ‘서술자적 청중’(최라영 2016a), ‘피화자/피서술자’(김승환 2018)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최상규의 번역을 따른다.

2008 등)는 그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화자와 아이러니의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한센(Hansen 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원본과 수화자의 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본고의 두 번째 연구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을 통하여 믿을 수 없는 서술의 분석에 수화자의 개념을 자세히 소개하고 수화자 분석을 통한 번역학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믿을 수 없는 화자

20세기 문학 비평에서 ‘화자-관점’ 연구는 서술 전략의 핵심적 주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지적 작가에 전적으로 위임하던 서술 방식이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이에 따라 서술의 주체를 소설의 등장인물에게 맡기기 시작하면서 작중의 화자가 ‘제한적 관점’에서 들려주는 소설 기법이 작가나 비평가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최경도 1991). 이처럼 작중의 화자가 제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품의 경우, 독자가 작중 화자의 서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부스(Booth 1983: 70)가 말하는 내포저자는 실제저자의 분신(제 2의 자아)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실제저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작품의 의도나 세계관 등을 품고 있는 ‘서술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의 의도를 현현(顯現)하여 인격화한 내포저자와 화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믿을 수 있는 화자로, 둘의 거리가 멀면 믿을 수 없는 화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부스의 주장이다.

내포저자라는 개념과 더불어 서술 화자의 신빙성에 대해 부스 이후의 많은 학자들이 해명과 반박을 거듭해 왔다. 채트먼(Chatman 1978/2021)은 부스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실제저자, 내포저자, 화자, 수화자, 내포독자, 실제독자로 구성된 의사소통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제저자-실제독자, 내포저자-내포독자, (화자)-수화자³⁾라는 대응구조를 형성하여 소설의 소통구조를 제시하였으나, 채트먼

의 내포저자에 대한 초기 논의는 모순되는 내용과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비판을 면치 못했다. 리먼-케넌(Rimmon-Kenan 2003: 87)은 채트먼의 내포저자가 독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voiceless) 존재라고 설명한 부분을 들어, 이처럼 목소리가 없는 존재를 인격화(personified)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뉘닝은 믿을 수 없는 화자의 개념에 반박하면서 과연 “어떤 기준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인지”(Nünning 2008: 33-34)를 묻는다. 믿을 수 없는 화자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내포저자에 준거’하여 화자의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것뿐인데, 내포저자라는 개념 역시 “불분명한 정의”(ill-defined concept)(Nünning 2008: 34)일 뿐이며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텍스트에 드러난 특징으로도 화자의 신빙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랜서(Lanser 2001)도 내포저자라는 개념이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구축하는 개념이라면 선험적(a priori)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독자중심적인 관점에서 내포저자를 바라보는 경우, 허먼과 버백(Herman and Vervaeck 2018)의 주장처럼 화자의 신빙성 여부는 독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을 뿐 내포저자를 끌어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화자 및 내포저자의 개념이 유용하는 의견도 있다. 독자가 화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화자의 서술을 지배하는 작품 저 너머의 존재를 생각하게 될 때, 더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올슨(Olson 2003)은 독자가 화자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표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즐거리를 예측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펠란(Phelan 2005)은 믿을 수 없는 서술(unreliable narration)의 경우 내포저자와 독자가 믿을 수 없는 화자를 통해 간접적 소통(indirect communication)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마주하는 독자의 독서 경험이 다양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독자가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입장에 동화되면서 가까워지거나(bonding) 멀어질(stranging)

3) 채트먼은 후술할 리먼-케넌의 비판을 수용하여 1990년에 출간한 저서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의 의사소통모델에서는 화자와 수화자의 괄호를 삭제하였다.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스펙트럼으로 제시하였다 (Phelan 2007).

내포저자 개념을 거부하는 학자들은 텍스트 내의 특징을 통해 독자가 화자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내포저자 개념을 포용하는 학자들은 내포저자와 화자와의 거리가 화자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데 좋은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포저자 개념이 효용이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화자의 목소리 너머에 존재하는 ‘작가의 의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독자들이 화자의 이면에 있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최라영 2016b: 406)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서술을 능동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2.2 수화자라는 개념

작가, 텍스트, 독자 등 소설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에 비해 수화자와 관련된 학술적 관심은 부족하다. 화자는 그 목소리가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수화자는 “침묵을 지키거나 존재 자체도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김창현 1995: 20)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화자-수화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수화자의 존재는 큰 학술적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그 그림자와 같은 존재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왔다. 바흐친(Baxtin 1929/1984: 195-198)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1864)에 등장하는 화자의 모든 말은 “(수화자를) 결눈질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깁슨(Gibson 1950: 265-268)은 허구적 독자로서의 ‘모의 독자’(mock reader)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실제 독자가 마치 소설 속 수화자가 된 것 같은 ‘모의 체험’을 한다는 의미로, 독자가 “어떤 가면을 쓰고 역할을 맡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소설은 나쁜 소설이라고 평하였다.

리먼-케닌(Rimmon-Kenan 2003: 89)은 소설의 서사에 있어 화자와 수화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소설 속의 화자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며, 설령 화자와 수화자가 일치하는 상황, 즉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화자 그 자신일 때조차도 수화자의 존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화자의 구분 기준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수화자의 위치에 따라 스토리 외부에 있는 수화자(extradiegetic narratee)와 스토리 내부에 있는 수화자(intradiegetic narratee)로 구분한다. 둘째, 소설의 서사에 참여 여부에 따라 서사에 참여하는 수화자와 그렇지 않은 수화자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수화자는 그 존재가 드러날(overt) 수도 있고 숨겨져(covert) 있을 수도 있다. 넷째, 수화자 역시 신빙성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화자가 수화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듯한 서술을 보인다면 ‘믿을 수 없는 수화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화자에 관한 국내 번역학 연구로는 스카즈(skaz) 내러티브 소설의 번역 문체를 연구한 조성은(2016)이 있다. 스카즈 내러티브의 구술성을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 중 하나로 수화자 분석을 제시한 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될 때 드러나는 “번역의 내러티브 장르의 변화”(조성은 2016: 134)에 주목한 연구다. 이처럼 수화자 분석은 내러티브의 구술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화자가 서사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제럴드 프랭스에 의해서다(Schmid 2013). 프랭스(Prince 1980: 23)는 수화자가 화자와 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서사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 화자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 일조하며, 소설 플롯의 전개에 일정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프랭스가 제시하는 수화자의 특징은 본고의 분석 모델로서 다음 장에 기술하고자 한다.

3. 분석 텍스트 및 모델

3.1 분석 텍스트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1935)는 주요섭이 「조광」(朝光) 창간호에 발표한 단편소설⁴⁾로 1인칭 서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친진함을 가장한 소녀 화자의 1인칭 서술로 진행되는 소설은 아직 아이인 화자

4) 본고에서는 문장부호를 현대 표기법에 맞게 바꾼 판본 중 하나인 범우사 판본(2004)을 기준으로 한다.

가 드러내는 친진함과 어른들의 비밀 사이에서 드러나는 대조적인 효과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다(김중구 1995; 이주일 2002; 최병우 2003 등).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옥희 아버지 친구인 사랑 손님과 옥희 어머니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이지만, 이 이야기는 소설 속의 친진난만한 어린 화자 옥희에 의해 전달된다.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이구요. 우리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어머니와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중략]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날더러 ‘과부 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아마 ‘과부 딸’이라나봐요.

위의 인용은 소설의 도입부로, 여섯 살 난 옥희의 때 묻지 않은 시선으로 소설이 진행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설 속 ‘나’로 등장하는 옥희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감정을 읽어낼 수 없으며 그저 보고 들은 바를 전달한다. 어른인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그저 통속적인 이야기에 그칠 수 있겠으나, 어린 아이가 전달하는 정보와 실제 사건 사이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소설에 서정적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시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며 옥희가 전달하는 정보량은 한정적이다. 옥희가 한정적인 정보만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는 그 간극의 틈새를 메워가며 소설을 읽게 된다. 즉, 믿을 수 없는 화자를 통해 서술이 전개됨으로써 주인공인 옥희 어머니와 사랑 손님과 대한 평가가 미뤄지게 되고 이로써 생긴 틈새에 독자가 적극적으로 해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옥희라는 화자의 특수성에 힘입어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오직 “시점 및 서술 학습을 위한 체계”(정진석 2015: 86)로 수록될 만큼 시점에 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소설 교육의 정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층위의 중층적 이야기를 구축하고 아이러니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김정자 1985; 박유희 2006; 이만교 2009). 이만교(2009: 6-7)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통해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발

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로 순진무구한 화자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매개하고 나면(a), 둘째로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당혹스러워하며 잡아떼는 장면이 등장하고(b),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행위와 모순된 이면의 진실을 화자가 폭로하는 부분(c)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사랑 손님이 달걀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자(a), 어머니는 떠들지 말라며 눈을 흘기지만(b), 그 후로부터 어머니는 달걀 장수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서 두고두고 삶는다는 옥희의 폭로(c)가 이어진다. 이와 같이 ‘옥희가 행하는 사랑의 매개 → 어머니와 사랑 손님의 부정 → 옥희의 폭로’라는 구조는 소설 내내 반복되며, 옥희 어머니와 사랑 손님의 경우에는 별은 말과 속뜻이 모순되는 “언어적 아이러니”(Muecke 1970, 한미애 2015: 185에서 재인용)를 나타낸다. 또한 옥희의 경우 의도와는 다르게 두 주인공 간의 사랑을 매개하게 되므로 의도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적 아이러니”(Muecke 1970, 한미애 2015: 185에서 재인용)를 자아낸다.

분석 텍스트의 영어 번역본은 김종운과 브루스 풀턴(Bruce Fulton)이 공동 번역한 *Mama and the Border*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영역본은 *A Ready-Made Life: Early Masters of Modern Korean Fiction*(1988)⁵⁾이라는 앤솔로지(anthology)에 실린 후 2014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며,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유일한 영어 번역본이다.

3.2 프랭스(Prince)의 수화자 분석 모델

프랭스(Prince 1980: 11-12)에 따르면 모든 소설에는 수화자의 존재가 함축되어 있으며 화자에 의해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이상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수화자는 화자가 쓰는 언어에 능통하고, 탁월한 기억력으로 화자의 서사를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으며, 화자가 소개하기 전에는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수화자에 대한 특별한 기호가 없고 서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수화자는 앞서 언급한 특징을 기본 값으로 가지게 되며 프랭스는 이를 ‘영점 수화자’(zero-degree narratee)⁶⁾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수화자의 특징

5) 미국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였으며 번역가는 김종운과 브루스 풀턴으로 동일하다.

이 화자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하면 수화자에게 개성이 부여된다. 예컨대 화자가 특정 외국어 단어의 뜻을 설명한다면 수화자가 해당 외국어를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혹은 화자가 언급한 문제나 등장인물에 대해 수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설정할 수도 있다. <표 1>은 프랭스(Prince 1980; 1982)가 제시한 수화자의 기호(signs of the narratee)를 정리한 것이다.⁷⁾

<표 1> 프랭스가 제시한 수화자의 기호(1980/1982)

	정의	예시
직접 호명	수화자를 직접 부르는 경우 (direct address)	그러나 독자에게 무슨 일이나 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후략) - 『주홍글씨』, p. 187
수화자가 포함된 ‘우리’의 사용	화자가 언급하는 ‘우리’(collective generalizing)에 수화자가 포함되는 경우	이 가없는 독사의 불행한 체험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가리키는 허다한 교훈 중에서 다만 다음과 같은 것만을 문자화하기로 하자 - 『주홍글씨』, p. 227
수사적 질문	등장인물이나 화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반복하는 경우	(전략) 독자에게 전해야 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남아 있다. 이 어린이가 이 세상에 나온 뒤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던가? - 『주홍글씨』, p. 75
부정	등장인물의 진술이나 화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수화자의 추측을 부정하는 경우	펠(Pearl) - 이라고 어머니는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어린아이 얼굴 모양이 진주 같다고 해서 그리 부른 것은 아니다. - 『주홍글씨』, p. 68
지시어	가리키는 대상이 문장의 전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화자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지시할 경우	앞으로 얼마 안 가면 불타는 그 주홍글씨를 영영 내던지게 되는 이 마지막 시간에 (후략) - 『주홍글씨』, p. 216

- 6) 프랫(Pratt 1982: 212-214)은 프랭스의 영점 수화자 개념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영점 수화자의 특징으로 언급된 것들은 화자나 서사 자체의 특징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화자-수화자-서사가 서로를 반사하는 순환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프랭스(Prince 1985)는 프랫의 비판에 대해 영점 수화자의 특징이 화자나 서사의 특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 7) 프랭스의 1980년 논문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Narratee’에서는 수화자의 기호를 여덟 가지로, 1982년의 저서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 of Narrative*에서는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메타서사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화자나 수화자 혹은 서사 행위에 대한 논평을 가하는 경우	만약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옷을 입고 빛깔이 수수한 우리 사회에 나타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야단을 했을 것이다. - 『주홍글씨』, p. 230
------	----------------------------------------------	------------------------------------------------------------------------------------

첫째는 수화자를 직접 부르는 경우로, ‘당신’, ‘독자’, ‘여러분’ 등으로 지칭한다. 이때 수화자는 서사의 참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시의 『주홍글씨』의 수화자⁸⁾는 ‘독자’라는 가상의 인물로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는 존재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화자가 언급하는 2인칭 복수 ‘우리’에 수화자가 포함된 경우다. 예시에 제시된 ‘우리들’은 화자와 함께 수화자인 독자 역시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수사적 질문의 사용이 수화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호가 되기도 한다. 화자나 등장인물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질문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서사에 대한 기존의 정보를 환기하며, 이로써 화자의 서사를 듣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넷째는 부정(negation)이다. 등장인물이나 화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수화자가 할 법한 추측을 미리 부정하는 경우 수화자의 존재를 암시하게 된다. 위의 표에 제시된 『주홍글씨』의 예시에는 ‘펠’(Pearl)이라는 이름을 두고 “얼굴 모양이 진주 같다고 해서 그리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수화자가 이름을 두고 할 법한 추측을 부정한다. 다섯째는 지시어(demonstrative term)로 문장의 전후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지시할 경우다. <표 1>의 예시는 소설의 결말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소설의 제목이자 주인공 옷에 새겨진 ‘주홍글씨’는 그 전의 언급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수화자는 이미 주홍글씨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에 오랜만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라는 지시형용사를 덧붙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화자의 신호는 메타서사(metanarration)로 “이야기가 아닌 담론 자체에 대한 서술”(Neumann and Nünning 2014: 344)을 의미한다. 즉, 소설

- 8) 소설 『주홍글씨』는 화자가 수화자(혹은 독자)에게 직접 설득하는 기법을 취한 것으로 유명한 작품으로(김지원 1998) 수화자의 기호에 대한 예시가 풍부하다. <표 1>의 예시는 소설 『주홍글씨』로 한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발췌하였다.

의 서사 대상인 등장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속 화자는 등장인물의 세계를 설명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프랭스(Prince 1980: 15)는 이를 메타서사로 정의하고 이러한 서술을 ‘지나친 정당화’(over-justification)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지나친 정당화를 통해 수화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예컨대 수화자가 어떤 편견이나 걱정을 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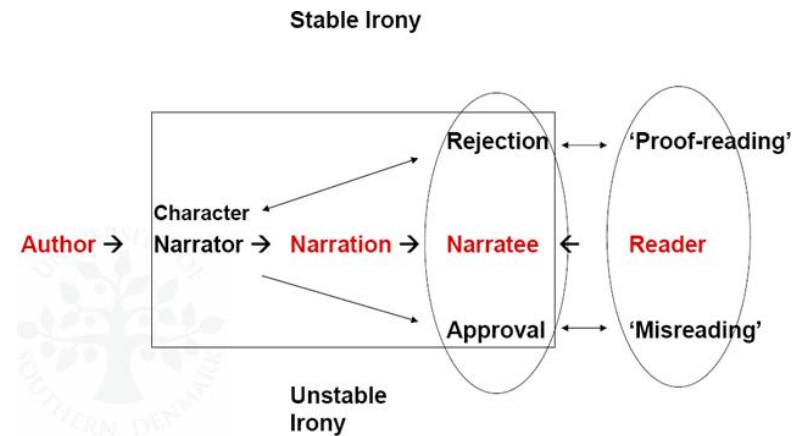
3.3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수화자와 아이러니의 관계

부스(Booth 1974)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화자는 내포저자의 가치와 신념에 반하는 서술을 하기 때문에 독자는 이야기를 읽어나갈수록 화자를 의심하게 된다. 이 때 믿을 수 없는 화자와 내포저자의 시점과 행동 및 목소리 사이에 ‘거리’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써 아이러니가 기능한다. 믿을 수 없는 화자와 내포저자 사이의 이 ‘거리’를 포착하고 요점을 이해한 독자는 저자와 비밀리에 공모(collusion) 의식을 갖게 되며, 이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한 독자들을 배제하는 데서 오는 기쁨까지 누린다(Booth 1983: 304).

부스(Booth 1974: 5-6)는 아이러니를 안정적인(stable) 아이러니와 불안정한(unstable) 아이러니로 나누면서 안정적인 아이러니의 성립 조건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아이러니는 저자에 의해 의도된(intended) 것이어야 하고, 의도를 감추어서(covert) 표현과 속뜻이 다르도록 하며, 독자가 그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 않도록 고정된(fixed) 속뜻을 가진다. 마지막 조건은 아이러니의 해석이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finite, local and limited)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세 번째 조건과 일맥상통한다. 불안정한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성립 조건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고 “저자가 그 어떤 명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를 거부”(Booth 1974: 240)하며,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조리하며 모든 서술이 아이러니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일컫는다. 부스는 내포저자의 아이러니가 안정적일 경우에만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서술이 성립된다고 보며, 불안정한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한다.

한센(Hansen 2017)은 독자가 믿을 수 없는 서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소통 모델을 수화자와 연결하여 제시한 바 있다.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서술을 듣는 수화자는 한편으로는 표면적인 서술을 따라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뜻을 헤아리는 이중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한센(2017: 13)은 전자를 ‘오독 기능’(misreading function)으로 후자를 ‘교정 기능’(proof-reading function)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그림은 한센(2017: 14)이 제시한 믿을 수 없는 화자가 진행하는 서술의 소통 모델이다.

그림 1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소통 모델(Hansen 2017: 14)



위 그림의 상단은 안정적인 아이러니가, 하단은 불안정한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수화자가 의심할 것을 대비하여 화자가 수화자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설득하려고 한다면 독자 역시 서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교정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안정적인 아이러니가 형성된다. 반면에 믿을 수 없는 화자가 수화자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서술을 이어간다면 독자 역시 화자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오독할 가능성이 생기며 불안정한 아이러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가 화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수화자가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양상을 극복”(Hansen 2017: 13)하기 위해 자기 교정과 끼어들기를 하는 것에 일부 기인하기 때문이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원본과 번역본에서 수화자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You’라는 기호의 등장과 수사적 질문의 순서로 정리하여 기술한 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유를 아이러니의 전달과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1 ‘You’라는 기호의 등장

한국어 원본의 옥희는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수화자를 특정할 만한 서술은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소설의 도입부에 옥희가 가족을 소개하는 서술은 수화자가 등장인물들에 대해 모르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다. 원본의 수화자는 서사의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점 수화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원본에서는 수화자를 인칭대명사로 호칭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는 반면, 영어 번역본에서 수화자를 ‘You’로 지칭하는 문장이 발견되었다. 이는 <표 1>에서 제시한 수화자의 기호 중 ‘직접 호명’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원본에 없는 수화자를 번역본에서 명시적으로 ‘You’로 지칭한 것은 총 여덟 번에 해당하며 본 절에서는 그 중 다섯 개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ST1-TT1의 예시는 옥희가 자신의 이름과 어머니를 소개한 뒤 외삼촌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ST1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 때 외에는 별로 붙어 있지 않아, 어떤 때는 한 주일씩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까요. 깜박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무얼.

TT1

He’s in middle school, and what with him gallivanting about, he’s hardly ever around except for meals. A lot of the time we won’t see hide nor hair of him for days on end. So can you blame me if I forgot him for a second?

옥희는 외삼촌을 깜박 잊어버린 사실에 대한 변명을 한 뒤 “깜박 잊어버리기도 예사”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ST1의 밑줄 친 문장이

TT1에서는 “So can you blame me if I forgot him for a second?”로 번역되면서 당신의 기호가 전면에서 드러나게 된다. 문자 그대로 번역해보면 “그러니 외삼촌을 깜빡했다고 당신께서 절 탓하실 수 있겠어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원본의 옥희는 자신이 외삼촌을 잊었다는 사실에 크게 패념치 않는 반면, 번역본의 옥희는 수화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어 “절 탓하실 수 있겠”이라는 방어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비난할 가능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무엇보다 원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당신의 기호가 번역본에서는 소설 첫머리에 등장했다. 다음의 예시에서도 번역본의 옥희는 계속해서 수화자의 인정을 바라는 듯한 서술을 이어나간다.

ST2

금년 봄에는 나를 유치원에 보내 준다고 해서, 나는 너무나 좋아서 동무아이들한테 실컷 사랑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노라니까, (후략)

TT2

One day Mother said she was going to send me to kindergarten in the spring. You should have seen how proud I was with my playmates.

ST2의 밑줄 친 부분은 유치원에 가게 되어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는 옥희의 서술이다. 원본에는 옥희가 느낀 기분(“나는 너무나 좋아서”)과 그로 인한 행동(“동무아이들한테 실컷 사랑을 하고”)이 전달된 반면, 번역본의 옥희는 “내가 동무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당신이 봐야 해요”(TT의 밑줄 친 문장)라고 말함으로써 수화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다음의 ST3-TT3 예시는 외삼촌과 어머니의 대화를 관찰자 시점에서 옮기는 옥희의 서술이다.

ST3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흥흥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TT3

Suddenly Mother’s face was all red. She didn’t say anything, but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she gave Little Uncle. Little Uncle gave a laugh to lighten the mood, and went out to the guest room.

옥희 어머니는 사랑 손님에게 밥상을 내가는 것을 전적으로 외삼촌에게 맡긴다. 하지만 ST1의 옥희의 서술에 나와 있듯 늘 밖을 싸돌아다니느라 “코빼기도 못 보는” 외삼촌은 끼니때마다 밥상을 나르는 심부름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에 한 번은 외삼촌이 옥희 어머니에게 ‘요즘 세상에 내외’ 하나며 무안을 주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었다는 것이 어린 아이로서 옥희가 할 수 있는 서술의 전부다. 번역본의 옥희는 그저 어머니의 표정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당신이 어머니 표정을 봐야 해요”(TT3의 밑줄 친 문장)라며 수화자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서술을 한다. 다음 ST-TT4의 예시 역시 관찰하는 상대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번역본에 드러난 수화자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ST4

“아저씨, 입때 우리 엄마 못 봤수?”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아저씨는 필쩍 뛰면서,
“아니,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
하면서 나를 잡아끌었습니다.

TT4

“Uncle, you’re silly! Haven’t you seen her face?”
But when I answered him that way, he didn’t say a word.
“Shall we go in and see Mother?” I asked, taking the uncle by the sleeve.
You should have seen how strongly he reacted.
“No, we’d better not — I’m busy now,” he said, pulling me back the other way.

방에 자주 놀러오는 옥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랑 손님은 옥희의 이목구비를 조목조목 읊으며 어머니를 닮았냐고 묻는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저씨의

옥희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옥희는 그 질문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이제껏 어머니를 보지 못했냐며 보러 들어가자고 청한다. 이 요청에 대해 원본에는 “필쩍 뛰”었다는 아저씨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에 그친 반면, 번역본의 옥희는 “당신이 아저씨의 완강한 반응을 봐야 해요”(TT4의 밑줄 친 문장)라고 수화자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이처럼 수화자를 염두에 둔 서술은 수화자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뿐만 아니다. 원본의 옥희는 아저씨의 “필쩍 뛰”는 행위만을 전달한 것에 반해, 번역본의 옥희는 그 행위가 ‘강한 반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혹감으로 인한 반응인지 순수하게 거부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없지만, ‘strong reaction’이라고 인지했다는 점은 단순히 행위만을 묘사한 원본의 화자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시는 아저씨와 뒷동산에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옥희의 서술이다.

ST5

그리고 그 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
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TT5

You don’t know how much I enjoyed walking home through the alleys
with the uncle holding my hand.

원본의 옥희는 그 날 아저씨와 보낸 시간을 “재미가 좋았”다고 회고하는 반면, 번역본에서는 아저씨와 손을 잡고 그 골목을 걸어오는 것이 “어찌나 좋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TT5의 밑줄 친 부분)라고 서술함으로써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발설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화자를 자극한다. 앞의 예시들을 종합해서 볼 때 번역본의 화자는 수화자가 자신의 발언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무색무취한 영점 수화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인정을 구해야 하는 대상 또는 더 나아가 자신의 발언을 의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수사적 질문

화자나 등장인물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반복함으로써 수화자의 기억을 상기시키거나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수사적 질문은 수화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호 중 하나다. 원본에는 없는 수사적 질문이 번역본에 추가된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번역본에서 수화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예시는 사랑 손님이 옥희네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옥희가 사랑 손님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묻는 대목이다.

ST6

“옥희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누?”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알 집어 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TT6

“Now what kind of side dish does Ok-hui like best?” he asked me.

Boiled eggs, I told him. Well, wouldn't you know it, he had some on his meal tray. He gave me one and told me to help myself.

원본의 옥희는 아저씨의 질문에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라고 대답한다. 원본에서는 사랑 손님의 밥상에 삶은 달걀이 올라와 있다는 정보를 미리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옥희가 밥상에 올라온 달걀을 보고 대답한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번역본에서의 옥희는 아저씨의 질문에 대답한 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 밥상에 삶은 달걀이 있지 뭐예요”(TT6의 밑줄 친 문장)라며 능글맞은 서술을 이어간다. TT6의 밑줄 친 부분 중 “wouldn't you know it”이라는 질문은 옥희가 사랑 손님의 밥상에 있는 반찬 중 하나를 일부러 골랐다는 것을 수화자에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예시는 옥희 어머니를 보러 예배당에 따라온 사랑 손님을 발견한 옥희의 서술이다.

ST7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두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

어 남자석을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 아 있겠지요.

TT7

We took our seats in the church and sang a hymn, and then there was a prayer. During the prayer I got to wondering if maybe the uncle was there too. So I sat up and looked over at the men's side of the aisle. And what do you know – there he was.

예배당에 오기 전에 사랑 손님에게 행선지를 알려줬던 옥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중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마침 와 있던 아저씨를 발견한다. 원본에서는 짧은 탄식(“그랬더니 하,”) 뒤에 아저씨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전달한 반면, 번역본의 옥희는 “이게 누구야”(TT7의 밑줄 친 부분)라는 수사적 질문을 수화자에게 던진 뒤 아저씨가 와 있다는 서술을 덧붙인다.

4.3 수화자의 변화에 따른 아이러니의 변화

원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수화자가 번역본에서는 ‘You’라는 인칭대명사로 전면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수화자는 번역본에 등장하기만 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4.1과 4.2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살펴 볼 때 번역본의 화자는 관찰자로서 등장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에서 나아가 수화자의 동의와 인정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삼촌 소개를 잊은 옥희는 원본에서 “까먹기도 예사”라고 하는 반면, 번역본에서는 “절 닷하실 수 있겠”냐고 수화자에게 반문한다. 번역본의 옥희는 유치원에 갔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ST2-TT2), 사랑 손님에 대한 마음을 들킨 어머니의 표정이 어땠는지(ST3-TT3),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들킨 사랑 손님의 반응이 어찌나 소란스러웠는지(ST4-TT4) 등에 대해 수화자가 보고 듣고 느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3.3에서 살펴본 수화자와 아이러니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그림 1)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원본의 독자는 화자의 서술 이면에 숨겨진 내포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교정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번역본의 독자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원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역본에서도 영점 수화

자로 서술을 이어갈 경우 수화자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독자가 오독 기능만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번역본에서와 같이 의심하고 거부하는 수화자를 상징한 후 화자가 수화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목표 문화권 독자 역시 수화자의 입장에서 서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본에 없는 회의적인 수화자를 번역본에 내세움으로써 표면과 속뜻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안정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오독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5.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내포저자의 개념을 번역본에 적용한다면, 번역가는 원본의 내포저자 의도를 파악하여 번역을 하고 그 의도는 내포독자에 의해 재구축된다(Sousa 2002: 18).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역가가 내포독자로서 번역본을 읽은 뒤 번역가 자신이 “새로운 내포작가로서 내포독자를 배려해 의미 전달을 위한 서사를 재구성”(이지민 2016: 159)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번역본의 문장 하나 하나는 번역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번역가는 수많은 번역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거쳐 내포저자의 의도를 목표 문화권 독자층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내포저자-내포독자의 개념을 번역학에 적용하는 데 있어 그 한계도 뚜렷해 보인다. 번역본의 내포저자인 번역가가 목표 문화권의 독자를 내포독자로 상징하여 번역을 한다는 가정은 모든 번역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함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원본 독자로서의 번역가가 내포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의도를 어떤 기준에서 취사선택하여 내포독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겠으나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번역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 등의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수화자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 내의 기호(signs of the narratee)를 통해 구조주의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수화자의 개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Pratt 1982; 1985) 믿을 수 없는 화자 또는 서술의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

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화자 개념은 프랭스가 의도한 바와 같이 서사 내에서 구조주의적, 형식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서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Prince 2011). 본고는 원본과 번역본에서 수화자가 변함으로써 번역본에서 아이러니가 더 안정적인 전달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믿을 수 없는 화자가 진행되는 서술의 특성상 아이러니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원본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가 번역본에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번역에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원본과 번역본의 수화자 변화 이유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해석을 시도해 본다면 번역학에서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고에서는 주요섭의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1935)와 영어 번역본의 수화자 비교 분석을 통해 수화자의 변화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믿을 수 없는 서술의 경우 수화자 변화를 통해 목표 문화권 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아이러니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번역본에서 원본에 없는 직접 호명을 사용한 이유에는 원본의 구성성을 전달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수화자가 가진 특성과 그로 인한 아이러니 전달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는 분석 텍스트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믿을 수 없는 화자가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소설로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선택하여 수화자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단편소설이니만큼 그 분량이 적어 분석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서술을 활용한 한국 소설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외에도 채만식의 『치수』, 김유정의 『봄봄』 등 다양하다. 한국 소설의 번역뿐만 아니라 *Gone Girl*(2012), *A Clockwork Orange*(1962) 등과 같이 믿을 수 없는 화자가 서술하는 해외 작품의 번역을 분석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서술을 바탕으로 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화자 분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본고의 의의는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수화자 분석을 통해 내포저자 이외의 서사학적 분석 개념을 번역학에 소개하고 그 분석 사례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간 서사학의 개념 중 번역학에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개념은 내포저자였다. 내포저자는 텍스트에서 그 실체를 찾기 어려웠던 반면, 수화자는 자신의 존재를 다양한 기호를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수화자 분석을 통해 번역학 내에서 서사학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서사구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승환 (2018) 「내포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어문론총』 78: 445-470.
 김정자 (1985)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원.
 김종구 (1995) 「주요설 소설의 집점화와 담론연구」, 『한국언어문학』 35: 493-513.
 김지원 (1998) 「내레이터와 독자의 공모」, 『비평문학』 12: 184-195.
 김창현 (1995) 「소설에 있어서 내레이터와 내레이터의 상호관계」, 『새한영어영문학』 33: 19-46.
 박유희 (2006) 「1960년대 문예영화에 나타난 매체 전환의 구조와 의미 <오발탄>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2: 167-193.
 이만교 (2009)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서사 비교 연구: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각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8(2): 229-251.
 이주일 (2002) 『한국현대작가연구』, 국학자료원.
 이지민 (2016)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이중시점과 내포작가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18: 137-162.
 정진석 (2015) 「소설교육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정전화 양상과 개선 방향」, 『문학교육학』 46: 81-101.
 조성은 (2016) 「스카즈 (skaz) 내러티브 소설의 번역 문체 연구」, T&I review 6: 133-148.
 최경도. (1991) 「소설의 관점」, 『성곡논총』 22: 1939-1967.

최라영 (2016a) 「‘암시된 저자’를 경유하는 시 텍스트의 독해 고찰: ‘화자가 회미한(Nonnarrated) 텍스트’와 ‘결함이 있거나(Fallible) 신뢰할 수 없는(Unreliable) 화자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7: 371-395.
 최라영 (2016b) 「‘암시된 저자 The Implied Author’와 ‘(비)신뢰성 (Un)reliability 문제’ 고찰」, 『어문학』 133: 383-412.
 최병우 (2003)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19: 107-128.
 최재서 옮김 (1953/2016) 『주홍글씨』, 울재 클래식스. (Nathaniel Hawthorne (1959) *The Scarlet Lette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한미애 (2015) 「채만식의 풍자소설에 나타난 아이러니 번역 양상: [치숙]과 [태평천하]의 영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5): 183-211.
 Bakhtin, Mikhail (1929/1984)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ooth, Wayne C. *A Rhetoric of Irony*,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ooth, Wayne C. (1983) *The Rhetoric of Fiction*, second edition,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tman, Seymour (1978/2021)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P.
 Chatman, Seymour (1990)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P.
 Gibson, Walker (1950) ‘Authors, Speakers, Readers, and Mock Readers’, *College English* 11(5): 265-269.
 Hansen, Per Krogh (2017) The Dynamics of Unreliable Narration. Available at <https://core.ac.uk/download/pdf/132597280.pdf>.
 Herman, Luc and Bart Vervaeck (2018) ‘State of the Art or State of Confusion? A Brief Look at Recent Narratologies’, *Tekstualia*: 3-17.
 Lanser, Susan. S. (2001) ‘(Im)plying the Author’, *Narrative* 9(2): 153-160.
 Muecke, Douglas Colin (1970) *Irony*, London: Methuen.
 Neumann, Birgit and Ansgar Nünning (2014) ‘Metanarration and Metafiction’,

- in Peter Hühn, Jan Christoph Meister, John Pier and Wolf Schmid (eds) *Handbook of Narratology*,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344-352.
- Nünning, Ansgar (2008) 'Reconceptualizing the Theory, History and Generic Scope of Unreliable Narration: Towards a Synthesis of Cognitive and Rhetorical Approaches', in Elke D'hoker and Gunther Martens (eds) *Narrative Unreliability in the Twentieth-Century First Person Novel*,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9-76.
- Olson, Greta (2003) 'Reconsidering Unreliability: Fallible and Untrustworthy Narrators', *Narrative* 11(1): 93-109.
- Phelan, James (1994) "Self-Help" for Narratee and Narrative Audience: How "I" – and "You"? – Read "How", *Style*: 350-365.
- Phelan, James (2005) *Living to Tell about It: A Rhetoric and Ethics of Character Narration*, Ithaca: Cornell UP.
- Phelan, James (2007) 'Estranging Unreliability, Bonding Unreliability, and the Ethics of Lolita', *Narrative* 15(2): 222-239.
- Prince, Gerald (1980)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Narratee.', Jane P. Tompkins (ed.) *Reader-Response Criticism: From Formalism to Post-Structuralism*, Baltimore: Johns Hopkins UP, 7-25.
- Prince, Gerald (1982)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ing of Narrative*, Berlin: Mouton.
- Prince, Gerald (1985) 'The Narratee Revisited', *Style* 19, 299-303.
- Prince, Gerald (2011) 'Reader', in Peter Hühn et al. (eds) *The Living Handbook of Narratology*, Hamburg: Hamburg University. Available at <https://www.lhn.uni-hamburg.de/node/52.html>
- Rimmon-Kenan, Shlomith (2003)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London: Routledge.
- Schmid, Wolf (2013) 'Narratee', in Peter Hühn et al. (eds) *The Living Handbook of Narratology*, Hamburg: Hamburg University. Available at <http://www.lhn.uni-hamburg.de/article/narratee>.

- Sousa, Cristina (2002) 'TL versus SL Implied Reader: Assessing Receptivity Whe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Meta* 47(1): 16-29.
- Ståhlberg, Andreas (2008) *The Functions of the Narratee in Kazuo Ishiguro's The Remains of the Day*, Master thesis, Karlstad University.

<분석 텍스트>

- 주요섭 (2014) 『사랑 손님과 어머니』, 파주: 범우사.
- Yo-sôp, Chu (1998) 'Mama and the Boarder', in Choung-un Kim and Bruce Fulton (eds) *A Ready-Made Life: Early Masters of Modern Korean Fic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89-106.

[Abstract]

**A Narratee Analysis of *Mama and the Boarder* (1935)
and its English Translation**

Yoon, Miseon
(Dongk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aims to show the shift of narratee in unreliable narration between the source text (ST) and the target text (TT) can affect the delivery of irony. The Korean novel *Mama and the Boarder* (1935) describes the love between a mother and a boarder through the eyes of a six-year-old child. This unreliable narrator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emotion her mother and the boarder express throughout the stor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s that the narratee - the receiver of the narrator's story within the text - of its target text is different from the narratee in the source text. The ST narratee is hard to portray since the ST narrator does not designate the narratee. In contrast, the TT narratee is signaled as 'You' while the ST narratee is not identified or called out. Furthermore, the TT narrator is found to resist the rejective side of the TT narratee.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hift of narratee should affect the delivery of irony. As delivering irony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when it comes to unreliable narration, the rejective side of the TT narratee can make sure the delivery of irony is more stable in the TT.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of Korean novels, narratology, narratee, mama and the boarder

▶ 주제어: 문학 번역, 한국 소설 번역, 서사학, 수화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

윤미선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부 미래인재양성사업팀 박사 후 연구원

moonyruna@naver.com

관심분야: 영상 번역, 문학 번역, 통역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